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주제는 새해 칼럼으로는 너무 거창하고 무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행복하세요.” 라는 새해 덕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며,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appiness>의 어원은 <happen>이다. 즉 행복은 발생하는 것이지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주체가 되어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그 무엇도 내 허락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로 요약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여덟가지 행복> 선언을 통해 행복의 진수를 가르쳐 주셨다. 차동엽 신부님은 그의 저서 <행복 선언>을 통해 예수님의 여덟가지 행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달라이 라마의 <당신은 행복한가>라는 저서에서 내용을 간추려본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이후 10 년만에 출간된 책인데, <행복론>은 <나> 대한 행복론이라면, 이 책은 <나>와 <우리>, 그리고 <그들>에 대한 행복 관계론에 해당하는 책이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같은 존재다.>라는 명제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길 갈망하고 고통을 피하길 원한다. 하지만 <나>와 다른 <우리>, 우리와 다른 <그들>, 심지어 <적>들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있으면 <그들>도 있다. 우리와 맞서는 그들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방식, 고정된 편견, 의심, 무관심, 차별, 갈등, 폭력, 잔인성등이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심지어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진다.

먼저 현대인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대표적 이유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를 꼽을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은 연결감과 결속감이 없는 공동체나 사회를 발견하게 된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고독할 때, 당신이 힘들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줄어든다. 미국인구의 25%가 친한 친구나 믿을만한 벗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나? 또한 1985 년 미국 통계에는 친한 친구가 3 명이라고 한 반면, 2005 년에는 단지 2 명뿐이라고 답한다.

즉 우리를 공동체와 이웃으로 연결해 주는 끈이 매우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일하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으며, 돈을 벌기 위해 당사자와 전혀 연관이 없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사이버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굴을 맞댄 직접적인 소통과 만남이 인터넷 등의 간접적 만남보다 훨씬 관계의 밀접성이 높고 강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옥스포드 대학의 진화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의 뇌로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최대 150 명이라고 한다.

현대인의 행복에 대한 조건들 중에는 타인과의 연결감과 공동체 의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가 가져다 주는 이점을 자각해야 한다. 고독과 고립과 소외로 부터 벗어나는 길은 <연결성>이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한 단체에 가입하면 이듬해에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두개의 단체에 가입하면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들과의 관계맺는 방식에 대한 자각이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특성, 공통된 관심사와 배경, 함께 나누는 경험들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타인을 만나는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공감해야 하는 것이다. 행복한 세상은 행복한 개인들로 이루어진다. 행복한 개인들은 <다양성>으로 구성된다. 아름다운 정원은 다양한 꽃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인정과 공감이 필요하다.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이라는 원칙이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정한 특정범주에 넣어 판단할 수가 없다. 특히 서양인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나. 흑백논리는 <우리>와 <그들>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배웠든, 못배웠던, 부유하든, 가난하든, 잘 생겼든, 못생겼든, 이 모든 차이는 <다름>일뿐, 모두가 존엄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은 <발견적 학습법 :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편리한 기준에 따라 그중 일부만 고려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어렵 계산법이라고도 한다.>에 의존한다. 이는 점차 차별과 편견으로 확산된다. 일종의 주홍글씨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이 그들 안에도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도 된다. 관계는 영구적이 아니며, 순간적이다. 좋은 관계는 좋은 순간들을 부단한 노력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행복의 그물망>이라는 설명도 있다. 당신이 행복하면 옆사람이 행복해질 가능성은 34% 더 높다. 1킬로미터 이내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도 25%까지 높인다. 행복의 영향은 1년까지 지속된다. 당신 주변의 행복한 사람 한명마다 당신의 행복 기회를 9%까지 높여준다. 그러니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의 주변의 행복한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 당신의 그물망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가,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가?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주변에 더욱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한 하루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